

#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찬양해요

찬송가 370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에스겔 2:1-7

- 1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 2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 3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 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 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 4 얼굴이 뻘뻘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 5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 6 너 사람아, 비록 네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 떼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 7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말씀 이해하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아라고 여러 번 부르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에스겔서에서만 93차례나 나오는 이 호칭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2월 4일 묵상 플러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뻘뻘한 자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그만큼 강박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과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1절을 비롯하여 3절, 6절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나요?

▶ 아, 일어서라.

2.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극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 이 뻔뻔하고 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에스겔은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 자기들 가운데 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4.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나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5.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